

# 복구, SSM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 중소상인들 환영 건축주 강력 항의

복구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 '마트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광주 복구청이 18일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복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건축주인 S법인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복구가 건축주에게 영세상인 대책위와 인근 학교 등과 협의서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인근 학교 관계자와 건축주간의 협의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구청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허가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 영세상인의 피해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지하 암반층 굴착에 따른 인근 학교의 피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우선 건축주에게 영세상인 대책위와 인근 학교 등과의 협의서를 첨부해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구청은 이번 반려 결정이 법적적인 토대가 없는 데다 관련법도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줄 것을 명시하고 있고 법원의 1·2심에서 모두 S법인이 승소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오전 광주 복구청 앞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송광은 복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복구청에 진입하려 하자 복구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복구청은 우선 건축주가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 강제 이행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것에 대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법인 대표 L씨는 이날 오후 복구청을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광주 중소기업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허가 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복구와 건밀하게 협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끝까지 막아내고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복구청 앞에서 입점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위 관계자 3명이 식발식 등을 통해 불허 처분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 예정지와 인접한 고려 중·고 관계자와 학부모, 대책위 150여명이 송광은 복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을 항의방문하려다가 공무원들이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진입을 가로막아 2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한은 총액한도대출, 은행들만 배불렸다”

### 연 1.25% 저금리가 中企 대출엔 6.85% 고금리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한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려고 2008년 말 1970억원이던 총

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919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액한도대출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데도 내

버려두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한은과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은은 은행이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 35%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중소기업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8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비율은 3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뒤라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8일 공정위가 전했다.

문제가 된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은 대출때 인지는 은행과 소비자간 합의에 따라 소비자 또는 은행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는 기존 약관을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한다'로 개정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역시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은행, 설정자 가운데 선택하던 것을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한다'로 바꿨다. 이는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다. /연합뉴스

## “쌀쌀한 날씨... 월동준비하자”

### 모피 등 방한의류 매출 급증

#### 유통업계 상품 준비 분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자 월동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면서 겨울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모피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월 33%, 10월 67%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5~17일까지 진행된 '프리미엄 모피 특집전' 기간 동안 모피는 무려 155%나 잘 팔렸다. 또 캐시미어 니트 등 겨울 방한의류 매출도 10월 들어 22%나 더 팔렸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럭셔리 링크 제안전'에서 모피 제품 매출이 지난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에 지역 유통업계는 월동상품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1일까지 가족제킷·코트 제안전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모피패션쇼도 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겨울 상품 매출이 늘자 겨울 상품 판매 시기를 앞당겨 1층 잠화매장에 '링크 머플러&스카프 특집전'을, 2층 구두코너에 '슬 마스터 추천 부츠 패션 제안전'을 열고 있다.

또 오는 11월에는 링크대전(5일 예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추위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와 지난해 학습효과로 겨울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가계대출 증가폭 3개월만에 확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대출은 은행에서 11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8월말 현재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75조원으로 전달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5월 6조3000억원에서 6월 4조1000억원, 7월 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택

대출 잔액은 351조7000억원으로 7월과 비교해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21조3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1조원 늘어 7월 증가액 1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연합뉴스

SINCE 1982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GIMMA 2010

제4회 The 4th Gwangju International Mold & Machinery Industry Fair

# 광주국제금형 및 기계산업전

2010. 10. 20(수) ▶ 23(토) / 김대중컨벤션센터 (KDJ Center)

www.gimma.or.kr

주최 |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주관 | Kbiz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The Fairs

후원 | 광주광역시

협찬 | 우진세레스, 화천기공

"금형 및 첨단기계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전시품목  
금형 / 부품 / 소재, 금형가공/성형기기, CAD / CAM 및 소프트웨어, 계측 / 검사기기, 금속공작/가공기계, 물류시스템, 공구/용접, 공정자동화기기

GIMMA2010 사무국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T. 02-588-2480 T. 062-954-2216  
F. 02-588-2599 F. 062-962-2218  
E. hipark@kimikorea.com E. moldmeca@naver.com